종교란 무엇인가 : 시대와 삶, 길을 찾는 그대에게
강사: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종교학 명예교수, 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이사장)

제3강(2014. 9. 18.)

신은 존재하는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신관(神觀)의 종류 (『종교란 무엇인가』 pp. 105-121)
유신론(有神論, theism) - 초월적인 인격신(super-natural God)
Cf.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 anthropomorphism)
유일신론(唯一神論, monotheism) - 이슬람
다신론(多神論, polytheism) vs 실제적 다신론
단일신론(單一神論, henotheism) vs. 실제적 단일신론/ 택일(擇一)신론
무신론(無神論, atheism) vs. 실제적 무신론
이신론(理神論, deism)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
회의론(懷疑論, skepticism)
범신론(汎神論, pantheism) - 신의 내재를 강조
범재신론(汎在神論, panentheism) - 가장 중요한 신관
侍天主
佛性
내 안의 그리스도 등

사신신학(死神神學, Death of God Theology)
바울: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13:11)

Meister Eckhart: Ungrund
Nietzsche: "신은 죽었다."
Paul Tillich: "the Ground of Being" the Being-itself, "the Unconditioned",
Karl Jaspers: "the All Embracing"

Apopathic/Negative Theology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무(無, non-being)
Brahman (neti-neti, nirguna Brahman)
공(空, Śunyatā)
류영모: "없이 계신이" (眞空妙有)
Tillich: God beyond God, God as a symbol of God

symbolic 상징적, analogical 유비적, metaphorical 은유적

하느님 아버지/어머니 - 양성구유성(兩性具有性, androgynous God)

『도덕경』은 도를 '어머니'로

기타 친구, 연인, 주님, 아기-예: 관불(灌佛)

기도의 응답으로 병고쳐주시는 신?

天地不仁『도덕경』5장

예수님의 하느님 - 해빛과 비를 의인 악인 가리지 않고 골고루

얌체 감사

부족신관(部族神觀, tribal God) (『예수는 없다』pp. 134 이하)

인종주의 신 - 출애굽

잔인한 신 - 가나안 정복

장애인 차별자

- 보편신관(universal God)

율법주의적 신관 (『예수는 없다』pp.145 이하)

보상과 형벌의 입장에서 신을 이해, How to Live vs. How to Behave

의무로서의 신관

포도원 농부들 - 아침부터 vs. 해질 무렵 (마20:1~15)

아침부터 일함의 특권

어느 신학자의 신관 - Marcus Borg (『예수는 없다』pp. 167~179)

심층종교의 신관

내 속에 있는 신

그 신과 나는 하나

그 신이 나의 참나

- 이런 진리를 깨달음의 중요성

늠름하고 당당하고 의젓하고 의연한 삶

Cf. **『도마복음』** -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깨쳐라.

참고: 『또다른 예수』(예담, 2009)

자유토론

오강남 교수의 아하!

신이 존재하냐고요?

필자에게 “신이 존재하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필자가 종교학자라고 특별히 물어보는 것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야말로 ‘대략 난감’이다. 질문자가 말하는 ‘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신의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이성과 논리로 논증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 가지 설을 제시했다. 이른바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등이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우주론적 증명이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것을 있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인들을 추적하다가 최초의 원인, 그것이 바로 신이다 하는 식이다. 쉽게 말해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사람을 만든 이가 있어야 이런 인과율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세계에서는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현상세계를 넘어 신이니 영생이니 하는 본질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도 ‘그러면 신을 있게 한 그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말로 이런 논증을 일축해버렸다.

그런데 신의 존재 논증 중 특별한 것이 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겸 수학자 파스칼이 주장한 ‘도박논증’이다. 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로는 알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도박하듯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이 있다는 쪽에 베팅하고 신이 없다고 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지만, 없다는 쪽에 베팅했다가 신이 있다면 망조이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쪽에다 베팅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절대자로서의 신이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한다고 좋아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싫어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를 인정해야만 마음이 놓일 정도로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는 신이란 말인가? 신은 그의 존재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대신 그의 존재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지는 않을까? 설령 더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경> 5장에서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는다”(天地不仁)고 한 것과 같이, 그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일 수는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절대적인 신은 본성상 어느 범주로도 제약될 수 없다. 따라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여러 심층 종교 전통에서 하는 말은, 궁극실재로서의 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없이 계신 이’ 정도다. 함부로 있다 없다 할 것이 못 되는가 보다.

2014. 2. 4. 한겨레 신문 종교 칼럼

오강남 교수의 아하!

신은 어디에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생명을 잃은 이들, 특히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어 온다. 이럴 때 종교인들이라면 이런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신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답답한 일이다. 기독교 계통의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 있는 분은 SNS에서 이런 답답함을 하소연하며 "차라리 신이 없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오래 전 유대인들은 신이 자기들만을 위한 신이라 여겼다. 이 신이 자기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줄 때 이집트인 집 장자들은 다 죽이고 자기네 집 아이들은 무사하게 살아남게 하고, 그 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자기들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고 믿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은 이른바 '부족신관(部族神觀)'에 의한 신이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외국의 침입에 쓰러지도록 하다니, 우리가 받들던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란 말인가.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부족신관이 크게 바뀌었다. 자기들이 받들고 있던 신은 이제 자기 민족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함께 다스리는 우주적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른바 인격적 보편신관(普遍神觀)의 등장이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다. 신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믿어왔는데, 나치 치하에 유대인 6백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비극 앞에서 그들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은 다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격신으로서의 신관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서양에서 불교를 비롯하여 동양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다.

저 위에 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특히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고 여겨지는 초자연적 신을 상정한다면 인간사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 마치 뉴턴의 역학을 가지고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까?

이런 엄청난 참사 앞에서 종래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관에 입각해서 공연히 신을 들먹이거나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비극을 자초한 우리 인간의 잘못을 통절하게 뉘우치고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처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남은 이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일일 것이다.

2014. 4. 29. 한겨레 신문 종교 칼럼